

야야야!

지금 남 신경 쓸 때야?

남보다 나



초논리적 버티기 인생 30년 박명수 자기계발서 특별 에디션

버티려면 명수처럼;

남보다 나

1% 실력으로 30년 버티기

함명수

저자: G.Park 박명수 

기획.정리: Ghostwriter 임재균

저자소개



박 명 수

개그맨, 작곡가, 가수, DJ, <할명수> 유튜버
나홀로 상경하여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 이후
30여 년간 이 바닥 버티기 신공의 소유자.

루머와 괴담 없는 청정 연예 생활.

이 바닥 버티기 30년 노하우를
어록과 함께 풀어낸 <남보다 나> 출간.

출간 즉시

밀리언셀러로 저자로 기대 받는 주목받는 출판계 기대주

머리말

*** 총체적 멘봉의 시대, 버티기 명수가 필요한 이유 ***

“연예계 거성이 될 때까지 버틴다”

방송 데뷔전 노트를 펼쳐보았다. 이렇게 적혀있었다.

‘연예계 거성이 될 때까지 버틴다’

과거가 불현듯 스쳐 가며 눈물이 핑 돌았다.

1991-92년 즈음 나는 손범수 선배님이 진행하는 거로 유명한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에 방청객으로 간 적이 있다. 손범수 씨는 웬만하면 방송 중 방청객한테 질문을 안 하지만 그날따라 처음으로 나의 아우라에 이끌렸던지, 방청객이었던 내게 질문을 던졌다.

이후 녹화 중 쉬는 시간에 손범수 씨는 말을 걸어와 "외모가 독특하여, 데뷔하게 된다면 신기하게 생겨 뜰 것 같다."고 칭찬을 해주셨다. 나는 이후 그 칭찬에 힘입어 개그맨 공채시험에 도전하였고, 당당히 합격 후 근 30여 년 시간을 버티기의 신공을 완성하였다.

방송에 나가려면 얼굴이 받쳐줘야 한다는 통념이 많던 시절, 내세울 것 없는 얼굴로 개그 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 많았다. 주위 사람들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시골 군산에서 올라온 내가 연예계에서 존놈이었다. 손범수 씨의 칭찬에 힘입어 운이 좋게 겨우 합격한 개그맨 공채시험 이후

그다음이 더 문제였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방송계에 처음 입문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버티기’였다.

개그맨 공채시험은 운전면허에 불과

개그맨 공채시험은 그저 운전면허 시험에 불과했다. 운전면허를 따면 그 사람 다음부터는 면허증을 가진 운전자가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운전해야 하는 것처럼, 개그맨 공채시험에 붙었다고 개그맨으로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곧 있으면 30년 노안과 탈모를 극복하고, 얼마 못 갈 것이라던 사람들의 예측과는 달리 연예계의 거성으로 거듭났다.

사람들은 나의 개그의 진심을 알아주었으며, 놀라운 팬심을 선물해주었다.

사람들은 그 비법이 무엇인냐고, 그 힘은 무엇인냐고 물었다.

그 힘은 새벽마다 정화수 떠 놓고 기도하는 힘도 아니고, 무당을 불러 굿을 하던 비법도 아니다. 바람 잘 날 없는 한국 연예계에서 30년이란 시간을 있게 해준 비결은 바로 “최강멘탈 버티는 힘”이었다.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버티자.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지금 삶의 무게가 힘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가늘고 길게 버티는 인생을 위하여
30년 최강 멘탈의 목전에서

G.Park 박명수

INDEX

머리말

총체적 멘붕의 시대, 명수가 필요한 이유

목차

제1장. 멘붕의 당신, 지금 명수가 필요하다

- 1) 포기하면 마음은 편하다: 세상은 생각대로 안 된다
- 2) 멘탈 노약자들을 위한 명수 처방법

제2장. 실전 명수멘탈 인간관계 편

- 1) 끈대가 되지 마라- 선배라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 2) 인내심보다 개선하라-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제3장. 실전 명수멘탈 직업 편

- 1) 나만의 리듬을 찾아라-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하다
- 2) 줄을 잘 서라-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땀

제4장. 실전 명수멘탈 처세술 편

- 1) 과감해져라- 티끌 모아 티끌
- 2) 일부러 고생하지 마라- 고생 끝에 골병난다
- 3) TRY:안 돼도 후회 마라- 안 되면 말고 정신

제5장. 실전 명수멘탈4단계- 명수멘탈 종합 편

- 1)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라 : 하나를 보고 열을 알면 무당
- 2) 유연하라: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가는 글

제1장. 멘붕의 당신, 지금 명수가 필요하다

- 1) 포기하면 마음은 편하다: 세상은 생각대로 안 된다
- 2) 멘탈 노약자들을 위한 명수 처방법



■ 포기하면 마음은 편하다: 세상은 생각대로 안 된다

생각대로 하면 이루어진다고?

오래전 그 누군가가 말한 내용이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상을 오래 할수록 망상만 풍성해질 뿐이다. **세상은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계획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인생은 변수가 넘친다. 내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바로 그것이다.

신나게 결혼계획을 세웠지만, 되지 않는다.

신나게 취업을 준비했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다.

밤새워 공부했지만, 시험에 떨어질 수 있다.

오랫동안 준비한 사업을 막상 개업하고 나니 지금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문을 닫을 수 있다.

도끼질하는 시간보다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이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포기하면 마음이 편하다. 솔직히 편하다. 도전이 없으니 상처도 없다. 그래서 편하다. 하지만 포기하면 미래도 없다.

직장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환상과 망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라는 뜻이다.

나는 개그맨, 작곡가, 가수, 치킨집 사장으로 도전해왔다.

역설적으로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실패도 많이 해왔다. 나의 유행어 “우이씨” 이후에 별다른 주목 없이 8년간의 기간을 버텼다.¹⁾

종종 막막함이 몰려왔다. 그때 시작한 것이 작곡가, 가수, 치킨집 운영 등이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설령 상업적으로 실패하는 것도 개그 레퍼토리로 삼기 위해서이지, 계속 덤비면 결과가 나온다.

세상이 생각대로 안 된다. 그래서 많이 시도하는 것이다. 포기하면 마음이 편하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힘들지만, 몸이 좋으면 머리가 편할 수도 있다.
남이 한, 두 번 시도 할 때, 나는 세 번 네 번을 시도하면 된다.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대안을 세 개, 네 개 마련해놓는다.²⁾

나도 개그맨을 못 할 때를 대비해 치킨집도 했고, 가수도, 작곡도, 이후에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운영했다. 확률적으로 적어도 하나는 대박 난다. 대박까지는 못 가도, 중박은 갈 수 있지 않는가.

이것이 내가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스킬이었다.

이 바닥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포기하면 편하다.

대신 대안은 있어야 한다.

1) 나는 나를 잘나갔는데 사람들이 몰라준 거야!

2) 실제로 내가 연예인을 못 하게 되면 내 가족들을 어떻게 부양할까 끊임없이 생각해

※ 박명수의 이 바닥 버티기 핵심정리

-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자.
- 도끼질하는 시간보다 도끼날 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 모자라면 계속 덤비면 된다.
- 포기하면 편하다. 하지만, 미래도 포기해야 한다.
-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적어도 3개 이상의 대안을 마련하고 살자

박명수

■ 멘탈 노약자들을 위한 명수처방전

이 시대는 멘탈 붕괴의 시대이다. 너도나도 어렵다고 한다. 하긴 어렵지 않은 시절은 없었다. 내가 근 30년³⁾ 방송계에서 잡초처럼 생명력을 이어나가는 사이 일어난 일은 IMF 국가 부도 사태,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했다. 이 기간 대통령은 6명이 바뀌었다⁴⁾

산속에서 혼자 자연인처럼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가거나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홀로 떨어져 살아갈 게 아니면 인간은 늘 다른 이들과 섞여 살아야 하고, 사회에 함께 살아야 한다. 제일 힘든 것은 바로 멘탈이 약해지는 일. 연예계에서도 멘탈이 약해지면 끝이다.

하루아침에 프로그램에서 쫓겨나는 일도 생기고, 인기가 떨어지고 슬럼프라도 경험하면 끝없이 추락할 수 있다.

적자생존. 약육강식. 딱 어울리는 곳이 바로 연예계이다.

내가 던진 한마디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일도 많고,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 구설에 오를 수도 있다. 심지어는 온갖 댓글이 화살과 비수로 내어 쏘여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못해 생을 마감하는 슬프고 잔인한 곳이 바로 연예계이다.

3) 원래 29년인데 반올림하자고.

4)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

이런 정글 속에서 근 30년 연예 생활을 해왔다는 것은 내가 봐도 기적에 가깝다. 내가 만약 멘탈노약자였다면, 나 역시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관찰해보니 거칠고 힘든 방송 생활에서 오랫동안 생명력을 이어가는 대부분 스타들은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연예계의 칼바람을 이겨내어 왕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제 박명수의 멘탈 을 따라서 이러한 고통에서 허우적대지만 말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며 오래 버틸 생각을 하자.

※ 박명수의 이 바닥 버티기 핵심정리

- 명수처방전은 멘봉통치약이다 버티려면 박명수식 멘탈을 따라가자

박명수

제2장. 실전 명수멘탈 인간관계 편

- 1) 끈대가 되지 마라- 선배라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 2) 인내심보다 개선이 먼저-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 끈대가 되지 마라- 선배라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나이가 많다고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자. 대학교마다, 직장마다, 그리고 방송국마다 똥 군기가 자리잡혀있다. 학년이 조금 높다고, 나이가 한 살 더 많다고 후배들을 달달 볶는 재미를 붙인다면 스스로 반성할 일이다.

선배라면 입은 닫아야 한다. 입이 닫히는 대신, 지갑은 열어야 한다. 그래야 후배들이 나중에 나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 후배들에게 사준다고 생각하지 마라. 선배가 지갑을 여는 일은, 일종의 투자이기도 하다.

방송계 바닥에서 근 30년 버틴다는 것은 타인을 위한 배려가 자리잡히지 않으면 오히려 3년도 버티기 힘들다.

내가 여의도에서 치킨집을 할 때다. 대학을 휴학하고 등록금을 벌기 위해 나의 치킨집에 아르바이트하던 학생이 있었다.

우연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등록금이 없어 한 학기 더 휴학해야겠다는 말을 들었고, 나는 선뜻 등록금을 대주었다. "나중에 돈 벌면 갚으라"는 말과 함께.⁵⁾

이 외에도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의 남편의 암 수술비를 매니저도 모르게 지원해 주었는데 한 네티즌이 글을 통해서 우연히 알려지게 되었다. 부끄럽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많이 있다면 남위에 올라서야 한다는 생각보다 적어도 남보다 조금 더 많다면 말은 닫고 지갑은 열어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했다.

5)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는 비밀이다. 묻지 마. 그냥 물어둬.

선배는 자랑이 아니다. 계급도 아니다. 입은 닫고, 지갑을 열면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남이 나를 칭찬해준다. 살벌한 세상에서 든든한 아군을 얻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선배라고 분명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입은 닫고 지갑은 열자. 그럼 후배들은 알아서 선배들을 좋아해 줄 것이다.⁶⁾

※ 박명수의 이 바닥 버티기 핵심정리

- 후배에게 입은 닫고, 지갑은 열자 가급적 많이..
- 그렇다고 후배들은 선배의 지갑만 바라보지 말자 선배들도 힘들다. (중요도 ★★★★★)

함명수

6) 출판하며 먼저 반성하는 것은, 나는 유독 1인자에게 지갑을 열었다. 더 많이 베풀지 못한 후배들에게 미안하다.

■ 인내심보다 개선이 먼저 -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다.

군대에서도, 사회에서도 귀에 딱지가 들어앉도록 듣던 말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수 없다. 피할 수 있을 때 피하고, 즐길 수 없어도 피해야 한다.

위험한 수술을 피할 수 없는 환자에게 수술을 즐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코로나로 고통스러운 경제환경에 놓인 자영업자에게 현재 상황을 피할 수 없으니 즐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취업난은 피할 수 없으니 즐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의 반동을 일으킨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는 반동 형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나의 경험상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말이 많아지면 나의 말수는 적어지고, 그 사람이 술을 좋아하면 내가 술이 싫어진다.

학창 시절 수학 선생님이 좋으면 수학도 좋아지고, 수학 선생님이 싫으면 수학도 싫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좋아하는 것이 생겨도 내가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이러한 반동 현상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만들어낸다.

인간관계 속에서 즐길 수 없으면 피하는 게 상책이다⁷⁾. 모든 인간관계가 그러하다. 내가 싫은 사람은 억지로 만날 필요가 없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라면 함께 대화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사람이라면 모를까 함께 있으면 괴로운 사람은 일단 피하고 보자.

즐길 수 없는 것은 피하고 봐야 한다. 본인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변에서 피할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을 붙여놓고 친하게 지내라, 혹은 잘 사귀어 보라고 말하며 기대하는 것은 폭력에 가깝다.

현재의 괴로움은 인내심을 발휘해 참아야 할 것이 아니라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무책임한 말은 주변에도 강요하지 말자.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그것이 버티며 인내하는 것보다 낫다.

※ 박명수의 이 바닥 버티기 핵심정리

- 이 세상은 인내심 수련 장소가 아니다. 인내심으로 견디기보다 개선을 하자
- 즐길 수 없다면 피하고 보자
-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무책임한 말은 하지 말고 남에게 강요 말자
- 피하고 싶은 괴로운 일은 견디지 말고 개선하자

7) 절대 오해하지 마! 강호동은 싫은 사람이 아니야 무서워서 그런 거야

제3장. 실전 명수멘탈 직업 편

- 1) 나만의 리듬을 찾아라-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하다
- 2) 줄을 잘 서라-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땀



■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하다

한때 아침형 인간이 인기를 끌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자가 된다거나, 아침에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찍 일어나는 새는 과연 벌레를 잡을까? 내가 새가 아니라 벌레의 위치라면 일찍 일어나는 바람에 새한테 잡아먹히는 것이 아닐까?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할 뿐이다. 피곤하면 성과도 떨어진다.

내일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할 필요는 없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방송이 새벽방송이다. 새벽에는 도무지 힘이 나지 않는다. 유머도 재미가 없다. 새벽에는 왠지 더 자야 할 거 같다.

물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못 잡는 것은 아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긴 잡는다. 하지만, 부지런한 사냥꾼에게 부지런한 새가 잡혀 버릴 수도 있는 노릇이다.

한때 아침형 인간이 유행했다.

지금 그 많은 아침형 인간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다고 한다.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고혈압 환자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운동하면 위험하다.

직업적으로 일찍 일어나야 한다면 일찍 일어나야 하겠지만, 일찍 일어나는 것을 못 하겠다면 직업을 바꿔야 한다.

아마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격언은 부지런함과 성실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 같다.

남들에 끼워 맞춰 살지 말고, 자신의 리듬대로 살자.

직업의 세계에서 버티는 것은 바로 자신의 리듬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한다. 직업의 세계에서 오래 버티려면 남의 장단에 맞춰 살지 말고 나의 리듬을 가져야 한다.

나도 새벽에는 잠을 잔다. 그것도 많이. 최대한 깊이. 최대한 편하게.

그래야 활동할 때, 좋은 컨디션에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유명한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고 억지로 새벽에 일어나 새벽형 인간이라는 틀에 나를 끼워 맞추지 말자. 자기만의 리듬을 갖는 것.

그것이 나를 지속 가능하게 버티는 힘이다.

※ 박명수의 이 바닥 버티기 핵심정리

- 직업의 세계에서 오래 버티려면 남의 장단에 맞춰 살지 말고 나의 리듬을 가져야 한다.
- 내일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할 필요는 없다.
-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할 뿐이다

■ 줄을 잘 서라-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땀

사람은 대부분 일을 한다.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한다.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할 거면 최고가 되던가 2인자가 되는 게 좋다. 직업의 세계에서는 특히나.

사회생활 중에 1인자가 누군지 직감한다. 이길 수 없다면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유재석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1등에게는 친하게 지내는 게 신상에도 좋다. 종종 방송촬영 중 유재석에게 맛있는 음식 등을 챙겨주면서 다른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본다고 하는 불평이 나오는 듯하다.

1등과 친하게 지내면 무엇이 좋은가?

아무래도 나의 든든한 땀이 되어준다는 것이다.

세상살이를 보면 재능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1%의 재능 정도만 있다면 99%의 땀으로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 누군가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99%의 땀이 갖춰져 있지만, 지방에서 태어난 나처럼 태어나면서부터 99%의 땀도 없는 사람도 있다. 99%의 땀이 없으면 어떨까. 1%의 노력이 있으니, 그 노력으로 땀을 만들면 되지⁸⁾.

8) 나는 1%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내가 잘하는 것은 '웃음'이므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웃기게 할지 생각했다. 내가 대학교 강사로 강의하러 가면 사람들은 다 지루해한다. 사람들은 내게 원하는 것이 웃음이지, 강의를 아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내가 잘하는 것 1%에 집중하자는 것이고 남들을 웃기기 위해 집중한다.

1인자가 누군지 찾아라. 그것도 직감적으로. 그리고 친하게 지내어 나의 뺨으로 만들어라.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는 것.

1인자 와 친하게 지내며, 2인자로 지내지만 1인자를 배우고 열심히 1인자 이상의 몫을 해내려는 부단한 노력과 결정적인 순간 뺨의 도움이 나를 이 바닥에서 30년 가까이 버티게 만든 힘이다.

비굴해도 어쩔 수 없지. 먹고 살려면. 하지만 비굴한 게 아니라, 유연한 거다. 비굴과 유연은 한 곳 차이.



※ 박명수의 이 바닥 버티기 핵심정리

-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
- 1인자를 인정하고 친하게 지내라
- 99%의 뺨이 없다면, 1%의 재능을 특화하라

제4장. 실전 명수멘탈 처세술 편

- 1) 과감해져라- 티끌 모아 티끌
- 2) 일부러 고생하지 마라- 고생 끝에 골병난다
- 3) TRY:안 돼도 후회 마라- 안 되면 말고 정신



■ 과감해져라- 티끌 모아 티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다. 작고 하찮은 것을 열심히 모으고 차곡차곡 쌓으면 언젠가 그 진가가 나타난다고 한다.

하지만 부익부, 빈익빈의 현실, 제로금리에 가까운 현실은 티끌 모아 티끌이 되기엔 충분한 조건이다. 과거 산업화시대에 금리는 10% 이상 넘을 때도 많았다. 열심히 개미처럼 저축하면 무엇인가 이를 기회가 많았다.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다. 하지만, 노동의 속도보다 자본의 발전 속도가 더 빠르다.

티끌 모아 태산인 줄 알았더니, 인플레이션이 생겨 물가도, 부동산도 저만치 올라가 있어 다시 티끌이다.

하지만, 티끌조차 안 모으면 더없이 바닥으로 추락한다. 1%의 재능도, 99%의 뺨도 없는데다가 지금 탕진잼에 빠져서 그나마 있던 재산을 탕진할 수도 있다.

아무것도 없다면 ‘축적의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티끌 모아 티끌이라도 해야지, 그것마저 없으면 빈털터리가 될 뿐이다.

박명수의 버티기 신념은 ‘과감함’에서 시작된다. 티끌을 열심히 모아도 티끌 된다. 그래서 과감한 도전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말하는 투자는 영 끌 해서 주식투자, 00코인 투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바로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계속 배우는 것이다.

나는 비싼 EDM 기계도 구입하고, 열심히 돈 주고 배웠다. 가수가 되기 위해서 음반도 열심히 사 모았고, 사업할 때는 책도 열심히 사 읽었다.

무엇보다 새로운 투자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했다.

내게 투자한 것은 내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노래도 부르고, 거성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차리고, 치킨집도 열심히 했다.

없던 시절 그나마 티끌이라도 벌려고 말이다.

티끌 모아 티끌에서 벗어나려면 과감히 투자하라. 나에게!



※ 박명수의 이 바닥 버티기 핵심정리

- 티끌 모아 티끌인데 티끌조차 안 모으면 남에게 손 벌리게 된다.
- 티끌 모아 티끌을 벗어나기 위해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 내게 투자한 것은 내게 돌아오기 마련이다.

■ 일부러 고생하지 마라- 고생 끝에 골병 난다⁹⁾

1.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대학만 가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
2. 취업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거짓말로 "내가 너 키워줄게 이것만 고생하자"
3. 지금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생하면 나중에 잘 살 수 있다.
4. 오늘의 고생이 내일의 열매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는 거짓말 중의 하나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다.

고생의 귀결은 고생임에도 불구하고 고생을 즐기라느니,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느니 하는 말들은 이제 집어치워야 한다.

마약 같은 약물은 무척 위험한 것들이다.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인데, 고생도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고생은 1급 중독성 물질이다. 고생하지 않으면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거나 하면 고생 금단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고생하지 않으면 왠지 모를 초조함이 느껴지는 것은 고생중독 현상이다.

9) 내가 해봐서 아는데, 고생했더니 지금 허리가 너무아파. 고생하지마

고생은 무척 중독성이 강하며, 대를 이어 전달되기 쉽다. 세대를 거쳐 전이되거나 기업문화나 전통이라는 이름을 뒤집어쓰고 이어진다. 안 해도 될 고생을 사서 할 경우 심신의 황폐화를 가져오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고생 장려문화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절대로 고생 끝에 낙은 오지 않는다. 고생 끝에 죽을 수도 있다.

일부러 고생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에, 매니저에게 코디에게 일이 없으면 쉬라고 말한다.

컨디션 좋으면 매니저가 아니라 내가 운전할 때도 있다. 일부러 고생시킬 필요까진 없는 거 아닌가. 내가 고생했다고 남까지 고생시켜야 어차피 고생과 원망만 남는다. 나도, 남도 일부러 고생해봐야 고생 끝에는 반드시 골병이라면 고생은 그만 권장하자.

※ 박명수의 이 바닥 버티기 핵심정리

- 일부러 고생하지 마라
- 내가 여유 있으면 남에게 고생 강요 하지 마라
- 고생 끝에 반드시 골병난다

■ TRY:안 돼도 후회 마라- 안 되면 말고 정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지 않다. 많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할 일이 많지 않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에서 최대한 많은 시도를 해야 한다.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됐을 일이면 진즉에 됐을 것이다. 남들이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데도 이유가 있다.

어려운 길은 길이 아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도 안 되면 되게 만드는 도전은 중요한 정신이지만, “안 되면 말고”의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안 되는 일을 붙잡고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생각으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는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야 한다.

‘안 되면 말고’의 정신으로 가수에도 도전했다. 안 된다고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

‘안 되면 말고’의 정신으로 작곡도 했다. 뜨면 좋고 안 되면 마는 거지.

‘안 되면 말고’의 정신으로 치킨집도 했다. 대박이었다.

‘안 되면 말고’의 정신을 EDM도 만들고 있다. 앞으로 대박 날 것이다. ‘안 되면

말고' 의 정신으로 자기계발서도 썼다¹⁰⁾.

안 되면 되게 하라 정신 대신

‘안 되면 말고’로 무장하자.

함명수

※ 박명수의 이 바닥 버티기 핵심정리

- 안된다고 지레짐작 포기하지 말고 무조건 시도하자. 근데 안되면 말고

10) 물론 시켜서 쓴 거야!

제5장. 실전 명수멘탈 4단계- 명수멘탈 종합 편

- 1)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라 : 하나를 보고 열을 알면 무당
- 2)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때다
- 2) 유연하라: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라 : 하나를 보고 열을 알면 무당

하나를 보고 열을 알아맞히길 바란다. 그런 사람을 센스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를 보고 열을 아는 사람은 무당일 수밖에 없다. 하나를 알려준다고 둘, 셋 정도는 유추해내지만, 열을 아는 것은 무당만 가능한 일이다.

하나를 보고 열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하나를 보고 열을 짐작하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다를 바 없다.

이제 아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자. 검색도 능력인 시대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그냥 검색하자.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다못해 하나를 보고 열을 알려고 하니, 무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한다. 그러다 장님 코끼리 만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람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알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기에는 너무나 정보가 많다.

사람도 마찬가지.

얼굴만 보고 전체를 평가하지 말자

목소리만 듣고 얼굴을 생각하지 말자.

실망하니까.

하나를 알고 열을 보면 그게 무당이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자.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자.

하나를 보고 열을 알면 무당이다.
몰라도 당당하면 된다.



※ 박명수의 이 바닥 버티기 핵심정리

-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 것이라 기대하지 말자
- 우리는 무당이 아니다
- 장님 코끼리 만지듯, 사람이든, 사건이든 하나를 보고 열을 속단하지 말자
- 지식이 너무 많다. 다른 사람도 모른다. 어차피 다 같이 모르니 몰라도 당당하자

■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때다

늦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 결혼은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늦으면 늦을수록 기회가 줄어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타이밍을 잡았다. 결코 타이밍을 양보하지 않는다.

나는 39세까지 쭉욱 미혼이었다가 2008년 4월 39세의 나이에 드디어 결혼했다. 내 아내는 피부 클리닉을 운영하는 8살 연하의 의사 한수민.

결혼 전에 한수민이 미국에 공부하러 가야 하니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 나는 그래도 여자친구가 잘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 받아들이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전화가 와서는 하는 말이 "나 미국 안 가. 안 간다고." 알고 보니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 장난친 것이란다. 나는 어쨌든, 더 늦기 전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

지금은 나를 위해 미국행도 포기해줬는데 아이랑 놀아달라는 등의 힘듦은 사치라고 생각하며 아내의 말을 잘 따라주고 있다.

인생은 타이밍.

결혼도, 공부도, 사업도 타이밍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때다. 그러나 해보기 전까지는 아니다.

그 타이밍을 맞추기 힘들어서 무조건 많이 시도하는 것이다.

내가 이루어낸 어떤 성취는 타이밍이 좋아서 얻은 결과인지도 모른다.

“ 지금 이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버티며 시도하자.



※ 박명수의 이 바닥 버티기 핵심정리

- 내가 이루어낸 성취는 타이밍이 좋아서 얻은 결과인지도 모른다.
- 타이밍이라 생각하면 시도하자.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때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 보기 전까지 아니다.

■ 유연하라: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끼리끼리', '무도' 잇는 MBC 새 히트작 될까

개그맨 박명수가 MBC TV 새 예능물 '끼리끼리'로 일요일 저녁을 책임진다. '무한도전' 종방 후 1년 만에 MBC로 복귀, 건재함을 과시할 수 있을 것인가.

'끼리끼리'의 박명수가 데뷔 20년 만에 인생 코너를 찾았다.

2020년 초 무한도전을 떠나 내가 진행하게 된 프로그램 '끼리끼리'에 대한 뉴스였다.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았고 박명수, 장성규, 이수혁 등 10명이 출현하는 버라이어티 쇼였지만, 결국 몇 개월 만에 종영을 피할 수 없었다.

나는 또다시 실패를 경험했다. 김모 작가에게 전화했다.

“ 나 때문에 프로그램 없어진 거야?”

방송계 근 30년 가까이 버텨온 나 역시 갑작스러운 프로그램 종영은 견디지 못할 자책감의 이유가 되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나 때문에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즉시 자책감이 몰려오고, 자책감은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공격한다.

이 바닥에서

“사건은 너 때문에”

”대박은 나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실패를 경험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지 말자. 나 때문이라고 자책하지 말고 다른 거 하면 되지. 설령 나 때문이면 어쩔까?

3단계에서 배운 ‘안되면 말고’ 정신을 되새겨라.

인생에 있어서 스스로를 망치는 습관은 ‘나 때문에’라고 자책하는 것이다. 멘붕의 원인은 스스로 내부에서 무너지기 때문이다.

30년간.. 하루의 끝을 반성으로 마무리하지 않는다.

일을 마치고 반성하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결국에는 주저앉기 때문이다.

모든 노력을 다해서 실패했다면, ‘내 탓이오’가 아니다.

‘내 탓이오’를 모든 일에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점점 더 죄의식만 든다. ‘내 탓이오’라고 생각하면 원래는 없었던 잘못이라도 만들어내고 싶어진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근 30년, 이 바닥을 버텨온 박명수의 가장 큰 멘탈이자, 박명수 처방의 핵심이다.

※ 박명수의 이 바닥 버티기 핵심정리

- 유연한 것은 비굴한 게 아니다.
- 자기 전에 반성하지말자.
- 나 때문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버티는 궁극의 힘이다. (중요도 ★★★★★)

박명수가 가르쳐주는 이 바닥 버티기 총정리

제1원칙 선배라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제2원칙 즐길 수 없으면 피하라

제3원칙 일찍 일어나는 새는 피곤하다

제4원칙 성공은 1%의 재능과 99%의 땀 : 과감해져라

제5원칙 티끌 모아 티끌, 과감해져라

제6원칙 고생 끝에 골병난다, 일부러 고생하지 마라

제7원칙 안 되면 말고, 안 돼도 나중에 후회 없도록 힘을 쏟아라

제8원칙 하나를 보고 열을 알면 무당,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라

제9원칙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때다,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라

제10원칙 나 때문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내 탓 아닌 게 더 많다

나가는 글

읽다 보면 남이야 어찌 되든 나만 잘되면 된다는 무지막지한 신념 같지만, 30년 이 바닥에서 버티 최강멘탈 에센스를 신념체계로 모아 ‘남보다 나’를 탄생시켰다.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 많은 분이 힘들어하신다. 이럴 때일수록 ‘버티는 힘’을 강조하고 싶다.

버틸 때는 기왕이면 웃으며 버티자.

버티는 것도 힘든데, 웃음까지 잃어버리면 더 힘들다.

마지막으로 강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버텼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근 30년이란 시간 동안 좌충우돌의 시간을 겪으며 제8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박명수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며 ‘남보다 나’를 통하여 부디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길 희망한다.

어렵다고 생각할 때,

계속 버티는 한.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책의 작성에는 많은 스케줄과 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그리고 책 쓰는 것이 힘들어 Ghostwriter 임재균 작가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힌다.

바쁜 와중에 책의 추천사를 써주신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여러모로 고생한 할명수 팀에게 감사드린다.

할명수

추천사

“1등은 불행하지만, 2등 명수는 행복했다.”_홍순부부(홍현희&제이쓴 부부)

“박명수는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다. 앞에선 툭툭대지만 알고 보면 정말 따뜻한 사람이다”_황광희

“내가 처음 마주한 그의 모습은 2004년 여의도 MBC 스튜디오 대기실 한쪽 구석에서 무릎 꿇고 있었다. 꾸굴이.. ㅎㅎ 그의 얼굴 앞에서 "코미디 하우스" 코미디언 선배들과 PD들의 샷대질이 분주했고, 그들의 입에서 나온 비말들은 그의 얼굴에 쏟아졌다. 인기는 크게 없지만 인지도는 있던 "우썬" 개그맨 박명수는 뭘 잘못했길래 저리 혼나고 있을까?

그러나 15년이 훌쩍 지난 지금 그는 그대로인데 세상은 변했다. 그가 라디오에서 한 발언은 기사화되고(왜 기사화되는지 모르겠지만...), 후배 PD들은 기획안을 보낸다(내가 제정신이냐고 말리지만..). "나 안 쓰는 PD는 옆집 아저씨만도 못하다"는 그에게 앞으로 평생 옆집 개보다 못하고 싶은 나지만, 또 이렇게 추천사를 부탁해온다. 존버! 존뽀! 존부! 박명수! 어디까지 가나보자..”_김태호 PD